

축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추운 겨울은 씨앗을 단단하게 하고, 무더웠지만 여름이 있어 열매를 더욱 여물게 합니다. 가을에 들어서니 결실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확을 나누어 마음의 풍요를 이루니, 관음종 창종 50주년을 함께하는 이 절기는 청명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 회원종단의 지도자 분들과 함께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시련과 고통은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한불교관음종을 개산하신 태허 조사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혼란한 시절에 이곳 탑골공원에서 의지할 곳 없는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픔이든 행복이든 함께 나누기 위한 헌신이셨습니다.

태허 조사는 ‘복을 구하지 말고, 복된 일을 스스로 찾아 성취하자’고 주창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성(一聲)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대한불교관음종을 개산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를 주창하시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각성하며, 스스로 증명해내자고 강조하시며 시민과 사회에 늘 함께하신 것입니다.

후학들도 태허 조사의 뜻을 받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종단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자체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도제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관음종복지재단을 통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문화학술원을 통하여 불교학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음종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종도,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회원 종단로서 종교적 책무를 다하며 한국불교 발전에 노력을 다하신 공로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한불교관음종이 한국불교의 중견종단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 꽃을 피워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태허 조사께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를 주창하셨듯이 현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불교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창립 50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오늘 기념식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도약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모인 공덕이 모든 사부대중의 행복과 안락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7일